

# 금 7개 중 6개 수확...전남 바이애슬론 동계체전 '절대 강자'

### 사전경기 압도적 기량 선보여 남자부 티모페이 랍신 4관왕 여자부 에카테리나 3관왕에

전남바이애슬론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총 7개 금메달 중 6개를 쓸어들었다.

지난 3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에서 계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 획득, 총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티모페이 랍신은 대회 전종목을 석권하며 4관왕을 차지했고,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는 3관왕에 올랐다.

전남 선발(함해영,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 티모페이 랍신)은 사전경기 첫 날인 지난 28일 바이애슬론 혼성경기에서 1시간

14분 49초로 금메달을 따냈다. 29,30일 남-녀 스프린트경기과 집단출발에서 티모페이 랍신과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가 금메달을 차지, 동시에 3관왕을 달성했다.

사전경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남자일반부 계주(22.5km)에서 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 김철영이 출전해 1시간 3분 33초0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함해영, 염혜진은 여자일반부 계주(18km)에서 1시간14분44초03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남은 사전경기(빙상스피드, 바이애슬론 대학, 일반부)에서 총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를 수확, 바이애슬론 최강 실업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바이애슬론에서 총 7개 금메달 중 6개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전국동계체전 본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최고 기량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6개 메달을 차지한 전남바이애슬론 선수단이 경기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김미선(왼쪽부터) 코치, 이인복 코치, 염혜진·함해영·김철영·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티모페이 랍신, 김상욱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 “쓰라린 패배들 거름 삼아 성장...자신감 넘친다”

### 광주 출신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2개 대회 연속 우승 '금의환향' “이제 한 번도 못 이긴 선수 없어”

“이제 한 번도 못 이긴 선수는 없는 것 같아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광주 출신 한국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21·삼성생명)이 지난 31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0일부터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인도네시아오픈을 차례로 치른 강행군이었지만 안세영의 얼굴엔 지친 기색보다는 뿌듯함과 흥분함만 묻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안세영은 지난 3개 대회에서 '천적' 천위페이(중국),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강적' 카를리나 마린(스페인)을 차례로 쓰러트렸다.

이들 모두 전·현직 세계랭킹 1위에 상대 전적에서 안세영에게 우위를 보였던 강호들이었다.

특히 천위페이(1승 8패)와 야마구치(5승 9패)에게 약했고, 마린에게도 3승 4패로 열세였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안세영은 쓰라린 패배들을 거름 삼아 성장했고 이번 대회에서 꽃을 피웠다.

말레이시아오픈 준결승과 인도네시아오픈 결승에서 각각 천위페이와 마린을 꺾었고, 야마구



2023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른 안세영이 31일 귀국, 취재진을 향해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치에겐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패했으나 곧바로 인도오픈 결승에서 설욕했다.

안세영은 이날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

이 부딪혀보고 많이 깨져보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지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자신의 천적이라 불리는 천위페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번엔 이긴 것이 엄청 놀랍진 않았다”며 “저도 그만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장 어려웠던 상대로는 역시 야마구치를 꼽았다.

안세영은 “(제 공격을) 잘 받아넘기고 공격도 좋다 보니까 상대하기 힘들었다”며 “결승에서 이길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마구치에게 패했던 경기를 복기하며 체력적인 약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임을 다시 보면 제가 체력이 떨어져 처지고 있을 때 야마구치는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며 “공격력도 부족하고 체력에서도 밀린다고 생각해서 체력과 웨이트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경기를 지면 서럽게 울었던 여고생 국가대표에서 이제는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선수로 성장한 모습이었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결승 패배를 떠올리며 “아쉽긴 했어도 다시 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진 않았다”며 “젖은 경기는 내려두고 (인도 오픈 결승에서) 제가 하고 싶은대로 즐기면서 게임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연합뉴스

## KOVO 공문 접수한 문체부 오늘 답변 오지영 트레이드 관련 권고 조치 할 듯



리시브하는 광주시페퍼스 오지영. <KOVO 제공>

### 페퍼스-GS칼텍스 5일 경기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와 광주 A페퍼스 간 트레이드와 관련한 권고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KOVO는 오늘 공문을 통해 양 팀 트레이드 계약에 합의된 ‘전 소속 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표준계약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문체부는 이미 관련 사안을 인지한 뒤 내용을 검토했으며 2월 1일 KOVO에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출전 금지 조항이 선수 권리 침해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KOVO에 권고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스는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지난달 16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에서 뛰던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35)을 영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 전 출전 금지 조항’

삽입을 받아들였다.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트레이드 세부 합의는 두 팀의 맞대결이 열린 지난달 23일 알려졌고, 당시 오지영은 해당 경기에 뛰지 않았다.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은 2021년 문체부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구단의 의무) 3항과 제19조(트레이드) 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조항엔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 전 출전 여부는 문체부 권고 내용과 KOVO, 양 구단의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페퍼스와 GS칼텍스는 5일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 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 허용한 IOC 잇단 비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조력국 벨라루스 두 나라 선수들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허용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유럽 각 나라 정계와 스포츠계 인사들이 비판을 잇달아 쏟아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저기즈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IOC를 비판했다고 31일(한국시간) 보도

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IOC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며 “러시아에 굴복하지 말고 러시아의 고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조했다.

카밀 보르티니치우크 폴란드 체육부 장관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초청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대륙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르티니치우크 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러피언게임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경쟁할 기회를 얻은 것에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폴란드와 영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일선에 있는 나라”라며 IOC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연합국과 더불어 ‘최후통첩’으로 IOC를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유령
2관	바빌론, 교섭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상견니, 돌핀보이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영웅, 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씨네커를	바빌론,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를	영웅, 메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

즐거움  
**문화산책**